

폴란드의 우유·유제품 생산 및 수출 동향¹⁾

허 덕*, 김태련**

1. 머릿말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폴란드는 2004년 유럽 연합(EU)에 가입한 동유럽의 농업 강국이다. 폴란드는 낙농에 적합한 기후 조건으로 EU(27개국) 내의 주요 원유(原乳) 생산국 중 하나이며, 2019년 원유 출하량은 EU 회원국 가운데 제4위이다. 또, 폴란드는 농업 산출액 중에서 원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즉, 낙농업분야는 폴란드의 주요 산업이라는 의미이다.

폴란드 농업의 특징은 소규모 농가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낙농 분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EU 국가들처럼 대규모 농가 집약화와 적지 생산화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EU의 원유생산할당제도(이하 ‘원유쿼터제도’²⁾)가 2015년에 폐지되면서, 이 추세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³⁾. 실제로 이 제도의 폐지는 폴란드 낙농 분야의

1) 이 글은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72.html)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및 해설을 덧붙여 원고한 것이다.

*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및 편집인

** KREI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2) EU에서는 1984년 이후 국가별로 원유 생산량의 쿼터를 배정하고, 쿼터를 초과할 경우 일정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회원국 내 농가 사이에서 매매 등을 허용하는 생산할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EU의 낙농부문 생산할당제도 또는 원유쿼터제도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2)-MMB 및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유럽 우유·유제품 수급·무역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낙농생산 할당제(쿼터제) 도입 전후의 제도에 대해서는 조석진, ‘EU의 낙농정책 변화와 영국의 낙농정책’, 「세계농업정보」, 2013년 6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신승열, 「원유품질 고급화의 경제 분석 및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년과 허 덕, 허신행, 「유제품시장개방에 대비한 원유가격차별정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년 그리고 허신행, 허 덕, 이왕재, 「낙농발전 장기대책 수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년, 허신행, 이성규, 허 덕, 「우유 수급균형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년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대형화 및 집약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 폴란드의 원유 출하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집약화 등이 진전되는 한편으로는 소규모 농가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농업 강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의 농가 지원에 대한 대응도 EU의 공통농업 정책(CAP)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⁴⁾. 하지만, 위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각 회원국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환경측면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한 노력에 의해 농가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폴란드는 생산된 우유·유제품의 약 30%(원유 환산)를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 제품인 유장⁵⁾분말(whey powder)이나 음용유, 생크림에 대한 주요 수출 파트너 중 하나가 중국이다. 유럽과 중국을 잇는 철도의 발달과 중국 내에서 분유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로 인해, 최근에는 폴란드의 우유·유제품 수출 동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폴란드는 세계에서 중요한 우유·유제품의 공급국이 되고 있다. 동시에 기후 조건의 우위성과 생산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낙농규모의 규모화나 집약화 현상은 기존의 조사료 위주의 사육방법에서 필연적으로 농후사료 위주의 사육방법으로 바뀌게 된다. 즉, 사료곡물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폴란드의 우유·유제품 생산과 수출 동향, 낙농·유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 중 환율은 1유로=126엔(11월 말일 TTS-달러 환율: 125.88엔)을 그리고 1유로=1311.95원(11월 17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였다.

3) EU의 원유쿼터제도 폐지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2)-MMB 및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유럽 우유·유제품 수급·무역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주로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EU의 차기 CAP 정책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차기 CAP(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4) EU 공통농업정책인 CAP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차기 CAP(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하여, 김태련, 허 덕,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1) -영국의 EU 탈퇴 후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2) -MMB 및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유럽 우유·유제품 수급·무역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김태련, 허 덕,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4)- 프랑스 새로운 농업·식품법의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특집: 유럽의 농업정책] 시리즈(9권 5호-9권 6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유장(whey, 乳醬 또는 乳清). 치즈를 만들 때 엉킨 젖을 거르고 남은 이 액체에서 수분을 증발시켜 농축된 것을 농축유장(condensed whey)이라고 부르며, 건조시켜서 수분을 제거시킨 것을 건조유장(dry whey)이라고 부른다. 유청이라고도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우유에는 수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효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은 가장 중요한 성분이며 이것을 제외한 것을 탈지유라고 한다. 탈지유에 산 또는 응유효소를 첨가하면 응고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응유(curd)라 하며 우유의 주단백질인 카세인이 주 성분이다. 응유를 제외한 수용액을 유장(또는 유청)이라 하고 전단백질의 20%를 포함한다. 유장에는 유당, 락토알부민, 락토글로불린,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락토글로불린에는 면역글로불린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초유에 함량비가 높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생명과학대사전, 강영희, <https://term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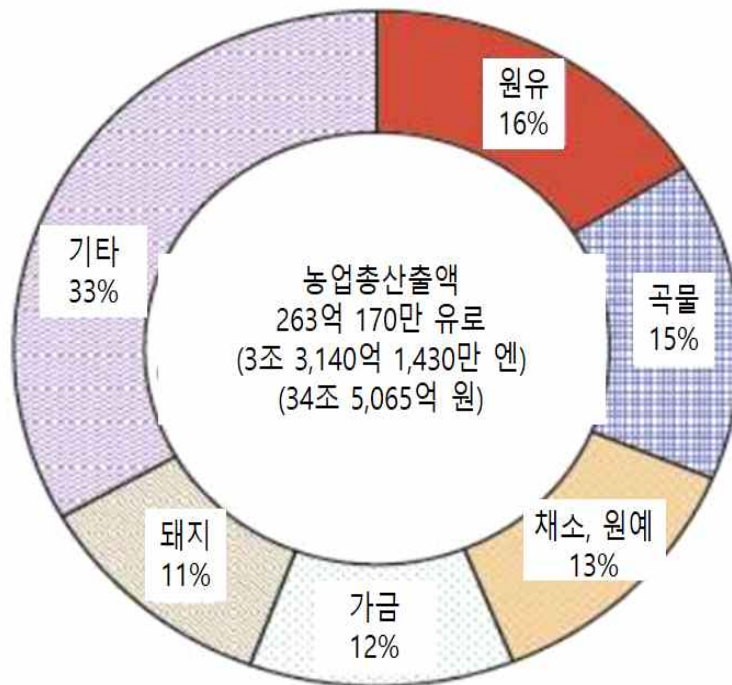
2. 폴란드 낙농산업

2.1. 낙농 분야의 개요

폴란드 국토 면적은 약 31만 평방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2.9배, 일본의 약 5분의 4정도이다. 폴란드는 국토의 47%가 농지이며, 31%가 삼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 환경도 좋은 편이다. 총 인구(약 3,797만 명: 2019년)의 약 3분의 1이 농촌에 살고 있으며, 농가의 규모는 비교적 작다.

폴란드의 2019년 농업 산출액을 부문별로 보면, 원유부문은 16%로 가장 높다. 낙농은 명실상부하게 폴란드의 주요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1> 농업산출액에서 점하는 부문별 비율(2019년)



주: 수치는 예측치임.

자료: EU위원회(Statistical Factsheet Poland).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폴란드의 2016년 낙농가 호수는 약 37만 3,000호, 젖소 사육 마릿수는 약 225만 마리이며, 1호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6마리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이다. 하지만, 폴란드의 원유 출하량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통계로 보면, EU회원국 가운데 제4위를 기록하고 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도 중요한 낙농국임이 확인된(표 1, 그림 2,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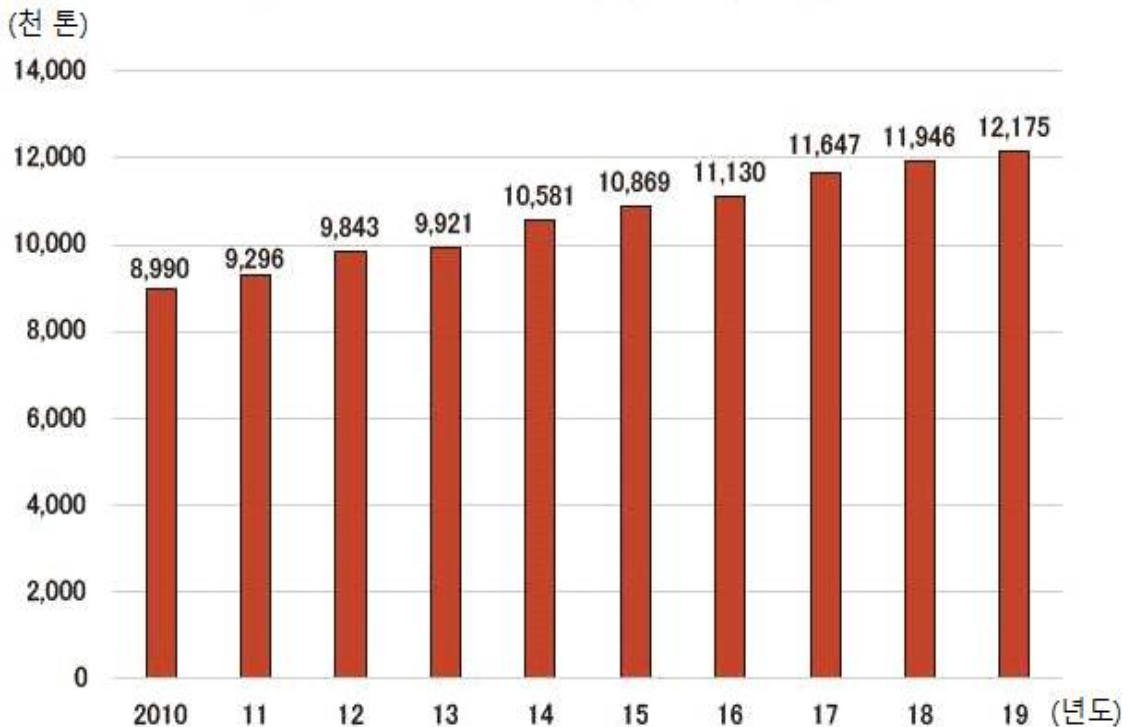
<표 1> 주요 원유 생산국가별 원유 출하량(2019년)

단위: 천 톤

국명	출하량
독일	32,422
프랑스	24,527
네덜란드	13,788
폴란드	12,175
이탈리아	11,965
아일랜드	8,227
스페인	7,265
덴마크	5,615
벨기에	4,288
기타	22,528
합계	142,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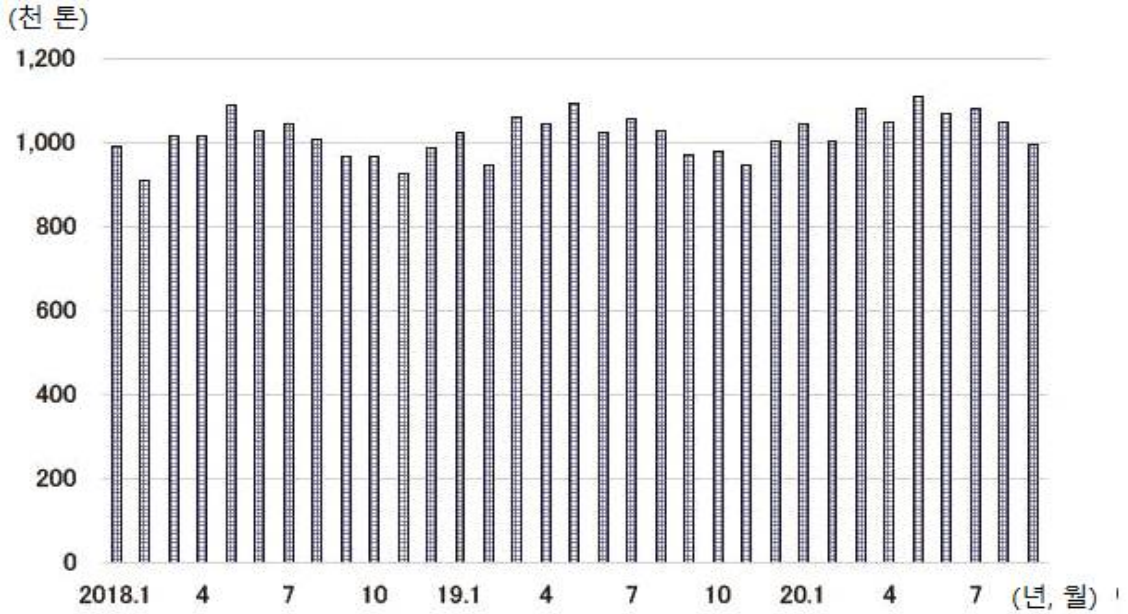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2> 폴란드 원유 출하량의 연별 추이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3> 폴란드 원유출하량의 월별 추이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미국 농무부(USDA)에 의하면, 폴란드에서는 북동부에 있는 바르민스코·마주르스키 현, 보돌라스키에 현, 마조비에츠키에 현이 낙농의 주요 산지이다(그림 4).

<그림 4> 폴란드의 주요 낙농지대



자료: USDA, 「Dairy and Products Annual」에 기초하여 ALIC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폴란드에서 사육되고 있는 젖소(축군 검정 참여 소)는 홀스타인 종⁶⁾(305일 평균 유량 8,055킬로그램)이 97%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전통적인 레드 폴릿슈⁷⁾(동 3,523kg, 0.29%)나 심멘탈⁸⁾(동 6,146kg, 0.88%)도 사육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양 규모가 매우 작지만 최근 점차 규모 확대가 진전되고 있다. 2005~13년 농지 면적별 사육 마릿수를 보면, 30~99.9헥타르 층에서 증가하는 한편, 2헥타르 미만~29.9헥타르 층에서는 감소하였다(표 2).

<표 2> 폴란드의 농지면적별 젖소 사육두수

(단위: 두, %)

	2005년	2013년	
			2005년대비 증감율(%)
0 ha	2,250	2,930	30.2
2 ha 미만	92,530	22,560	-75.6
2~4.9 ha	293,340	120,520	- 58.9
5~9.9 ha	519,460	275,560	-47.0
10~19.9 ha	854,690	646,240	-24.4
20~29.9 ha	445,540	441,500	- 0.9
30~49.9 ha	316,140	412,980	30.6
50~99.9 ha	130,240	222,290	70.7
100 ha 이상	199,540	198,940	- 0.3
합계	2,853,740	2,243,530	-17.9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 6) 홀스타인(Holstein). 네덜란드의 프리슬란트 지방 원산인 대표적 젖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흑색 반종, 영국에서는 프리지언(Friesian), 미국에서는 홀스타인 프리지언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에 분포하여 주요 낙농국의 주력이 되고 있는 품종이며, 현재 외국에서는 홀스타인협회가 조직되어 계통적으로 번식시키고 있다. 한국 젖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흑백의 얼룩무늬가 특징이며, 주로 검은색은 몸 윗부분에, 흰색은 몸 아랫부분에 많다. 윤곽이 선명하고, 비경(鼻鏡)이 넓으며, 강하고 뚜렷한 턱을 가지고 있다. 눈은 크고, 이마는 넓다. 표준 몸무게는 암컷이 650kg, 수컷이 1,000kg이다. 가장 대형인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며, 성질이 온순하다. 젖소 중에서 우유 생산량이 가장 많고, 유용종 중 비유량이 가장 높으며, 연평균 산유량은 각국의 개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1994년 연평균 산유량이 5,900kg이었는데, 이후로도 산유량은 계속 늘고 있다. 유지율(乳脂率)은 약간 낮아 평균 3.5%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 7) 영국 원산인 레드폴(Red Poll) 종의 교잡종인 것으로 생각된다. 레드 폴 종은 고기 및 우유생산성이 좋은 품종으로 영국의 중동부 해안지역인 Norfolk와 Suffolk 지방에서 기원되었다. 이 품종이 이 지역에 유입된 경로는 불확실하지만 로마에서 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품종은 1874년 영국의 Henry E. Curen 이 발간한 English Enterprise Herd Book에 처음 발표되었다. 이 품종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품종은 무각이고, 피모색은 붉은데 얼은 적색에서 짙은 적색까지 다양하다. Red Poll종은 크기가 중간 정도이고, 비유능력이 우수하다. 성숙한 암소의 체중은 550~800kg, 수소의 체중은 900~1,000kg 정도이다. 1873년 G. F. Taber는 이 품종을 뉴욕으로 도입하였고, 1883년 미국에서 Red Poll Cattle Club이 구성되었다. (출처: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해설, <https://www.nias.go.kr:3443/lbreeds/selectLsBreedsView.do>)
- 8) 심멘탈종(simmental). 스위스 원산의 소의 한 품종으로 고기와 젖을 겸한 겸용종과 고기만을 주로 생산하는 고기용 소가 있다.(출처;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q/psqb/farmTermDicLst.ps?menuId=PS00064>)

또한 2015년 EU의 원유쿼터제도 폐지로 더 집약화와 적지 생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에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진행되고 있다.

EU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ERASMUS+⁹⁾’에 의하면, 폴란드 낙농 분야의 장단점은 <표 3>과 같다.

<표 3> 폴란드 낙농분야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초 등 사료자원이 풍부하여, 원유생산량을 증가시킬 잠재능력이 있음. • 가공처리에 관한 기술과 투자가 있어, 가공처리능력에 여유가 있음. • 인건비 등 생산 코스트가 낮고,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음. • 효율성 향상의 여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농가가 많음. • 낙농가의 기술면이나 노동면의 효율성이 낮음. • 낙농가끼리의 연대가 약함. • 낙농가의 마케팅, 관리능력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능력이 부족함. • 가공처리설비의 집약율이 낮음. • ‘수출용 플랜트’의 점유율이 낮고, 생산자조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자료: 「ERASMU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2.2. 사육 방법

폴란드 유업협회(이하 ‘ZPPM’)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름은 방목하고 다른 계절은 축사에서 젖소를 기른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초지연맹(European Grassland Federation)에 따르면, 폴란드의 방목율은 20% 정도로 비교적 낮으며, 방목율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9) ERASMUS+는 유럽에서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를 지원하는 EU의 프로그램이다. 147백만 유로의 예산으로 400만 명 이상의 유럽인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까지 지속될 예정으로 개설된 ERASMUS+는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며, 7개의 이전 프로그램을 병합하여 다양한 개인 및 조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격 기준을 포함한 이러한 기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rasmus+ Programme Gui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중앙 집중화된 기회에 대한 명확한 자금 지원 가이드도 이용할 수 있다. ERASMUS+의 목적은 유럽 2020년 성장 전략, 일자리, 사회적 형평성 및 편입 전략과 더불어 EU의 교육훈련 전략 틀인 ET2020의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다. ERASMUS+는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파트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EU 청년전략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의해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 감소, •성인 학습 촉진, 특히 노동 시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과 기술을 위한 교육, •청년들에게 유럽 민주주의 참여 독려, •혁신·협치·개혁 지원, •조기 퇴학 단축, •EU 협력국과의 협력 및 이동성 증진 등이다.(출처: ERASMUS+ 홈페이지, https://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about_en)

2.3. 원유 출하처

ZPPM에 의하면, 낙농가가 생산하는 원유의 70%는 낙농업협동조합(낙농협)에, 30%는 유업회사에 출하되고 있다. 낙농가 직거래는 극히 적다고 한다.

폴란드의 관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낙농가는 출하처를 정할 수 있지만 많은 농가들이 기존의 출하처로 내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다. 농가가 출하처를 정함에 있어 <표 4>의 요소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폴란드에는 약 160개소의 원유 처리시설이 있으며, 하나의 지역 내에도 낙농협 및 유업회사 모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4> 낙농가가 원유 출하처를 정할 때 검토하는 요소

요소	주요 요인
전통적 요인	대대로 농협 회원이기 때문에 가업을 이을 때 신세대가 기존에 소속하여 있던 농협에 계속해서 소속
원유 수취가격	수취가격에 따라 출하처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음.
지리적 조건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경우, 수송코스트를 포함한 원유가격으로 판단하기도 함. 원유 부족 시나 유기 유제품 등의 경우에는 지리적 조건에 관계없이 거래가 이루어짐.
시장구조의 변화	농협의 매수나 합병이 이루어지면, 합병된 농협의 소속농가가 합병주체 이외의 출하처에 출하하는 경우도 있음.
출하처의 경영문제	출하처의 경영에 대한 불만이나 재정권 등을 이유로 출하처를 변경하기도 함.

자료: ZMMP 청취조사에 의거 ALIC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2.4. 원유 출하 계약

폴란드에서는 국내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수확물 등을 판매하는 농가는 거래처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낙농협과 조합원의 거래는 이 규정을 예외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서면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낙농협은 정관에서 위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조합원(낙농가)이 출고하는 원유는 모두 사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농협이 조합원 이외의 낙농가부터 원유를 사들일 경우에는 서면계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예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유업회사에 원유를 판매하는 낙농가들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30%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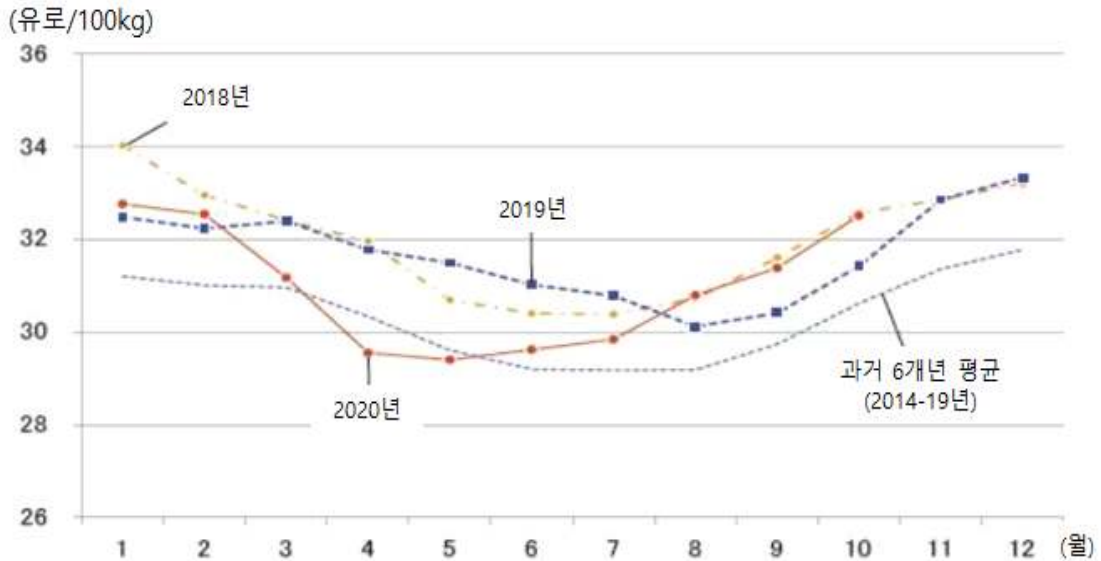
그러나 낙농협에서도 서면 계약에 합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합원인 낙농가와 의 사이에 원유 가격 계산법이나 특정 행위에 대한 벌금 지불에 관한 결정에 합의하고 문서를 체결하기도 한다.

2.5. 유가 결정 방법

생산자 유가는 원유의 집유량, 유지방, 단백질 함량, 위생 품질 요건이나 수송코스트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또 유기 인증을 취득한 원유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포함된다.

폴란드의 원유 거래 가격 추이는 <그림 5>와 같다. 폴란드에서는 우유·유제품의 30%가 수출되고 있어, 폴란드의 유가는 유럽을 비롯한 외국의 시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 5> 폴란드의 원유거래가격 추이



주: 최근 월은 속보치

자료: EU위원회, 「European Milk Market Observatory」.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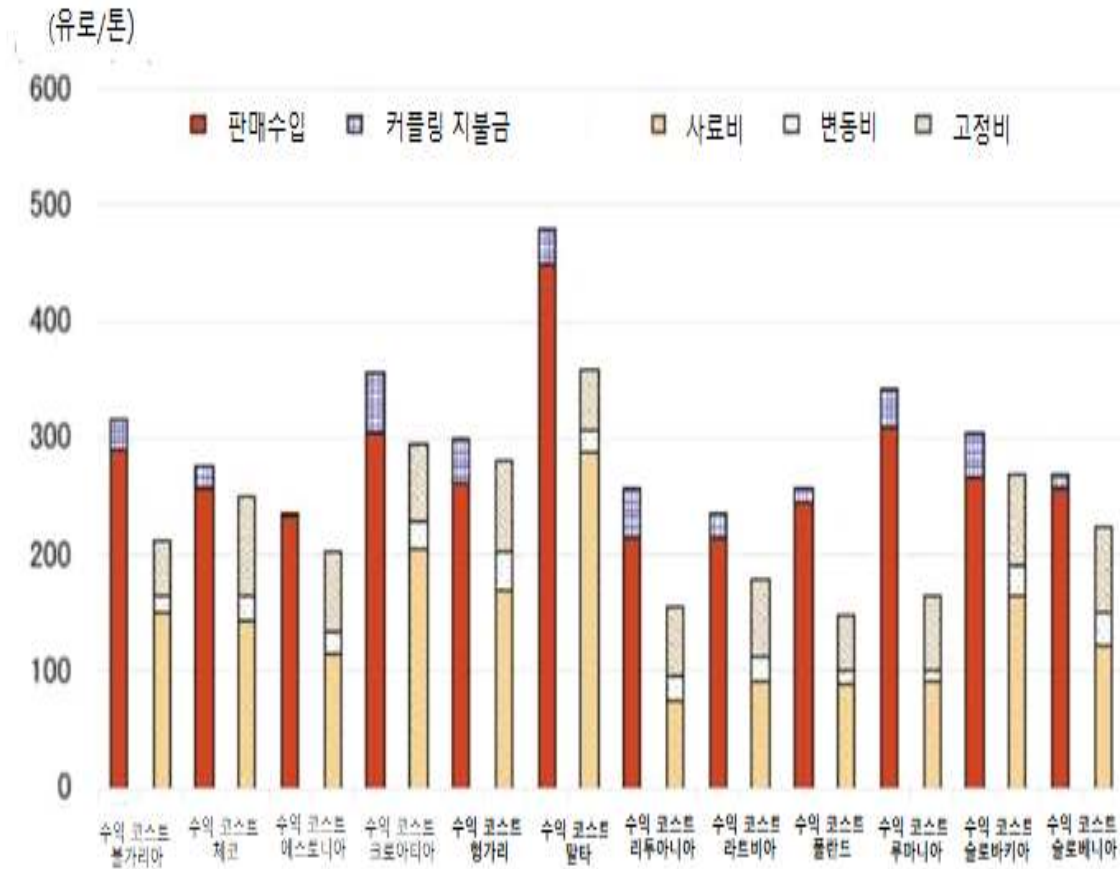
2.6. 생산 코스트¹⁰⁾

유럽 위원회가 2016년에 공표한 생산코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 생산코스트에서 사료비가 약 50%를 차지한다. 사료비 중 70%는 구입 사료비이며, 30%는 자급 사료비이다. 기타 구성 요소로는 에너지, 기계·건물, 유지비 및 노동비가 각각 생산 코스트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0) 여기에서 생산비라 하지 않고 생산코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학술적인 생산비 개념과는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학술적인 개념에 의하면, 각종 물재비(현금지급성 항목의 비용)에 감가상각비와 고용노력비를 더한 뒤, 부산물 가액을 뺀 것을 '경영비'라 하며, 이 경영비에 자가노력비와 각종 자본이자를 더한 것을 생산비라고 한다. 생산비에 대한 자세한 것은 許德, 「養豚經營の成長・發展と國際競爭力強化の可能性に關する研究」, 京都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年 또는 熊谷宏, 「農業經營・計算の小辭典」, 富民協會, 1981年, pp.118-119를 참고하기 바란다.

폴란드는 우유 생산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조이익(粗利益)¹¹⁾은 EU13개국¹²⁾ 중 3번째로 높은 톤당 109유로(1만 3,734엔, 14만 3,003원)로 나타났다(그림 6).

<그림 6> EU13개국의 낙농가 수익과 생산코스트(2016년)



주 1: 키프로스는 기밀상의 이유로 비공표.

2: 커피링지불금은 특정 생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만 지급되는 직불금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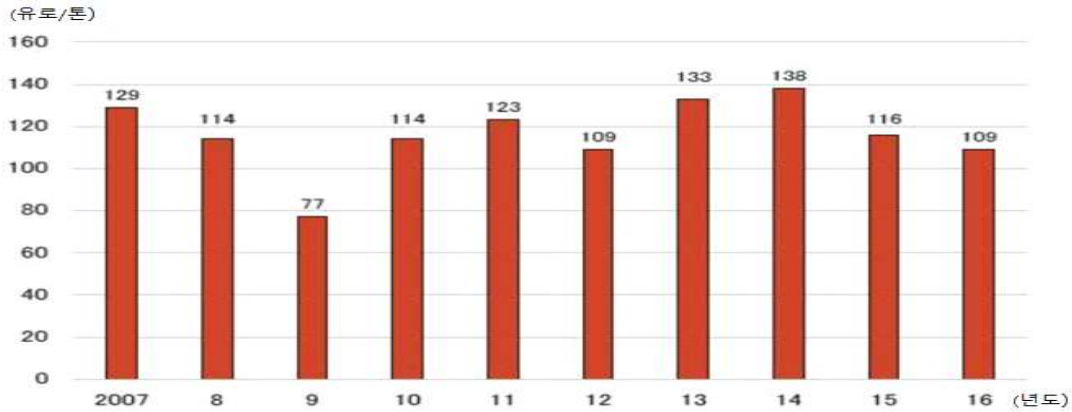
자료: EU위원회, 「EU Dairy Farms Repor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최근의 추이를 보면, 폴란드의 조이익은 EU 전체의 원유가격 변동에 따라 추이하고 있다. 2009년에 원유 가격이 바닥을 치고 이후 총이익은 살아났으며, 2014년에 최고조에 달하였다(그림 7). 그 뒤 2015년부터 2016년은 떨어졌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저하는 2015년 원유쿼터제도 폐지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배경일 가능성이 있다.

11)낙농 부문의 수익에서 생산코스트(노동, 토지, 자본에 관한 비용 제외)를 뺀 수익.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코스트는 경영비에 자가노력비를 더한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12)보고서 내에서는 EU회원국을 2004년 이전에 가입했던 15개국(EU15)및 동년 이후에 가입한 13개국(EU13)로 나누고 있다.

〈그림 7〉 폴란드의 낙농가 조이익(粗利益)의 연도별 추이



자료: EU위원회, 「EU Dairy Farms Repor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3. 폴란드의 유업

3.1. 유제품 생산

2018년에 가장 생산량이 많은 유제품은 음용유로 178만 톤이다. 다음으로 치즈가 86만 톤, 요구르트 외가 53만 톤, 생크림 25만 톤, 버터 21만 톤의 순이다(표 5).

〈표 5〉 유제품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품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유	9,009	9,318	9,861	9,925	-	10,876	11,143	11,649	-
음용유	1,472	1,454	1,511	1,616	1,597	1,639	1,655	1,734	1,779
생크림	236	232	244	245	248	253	258	261	254
전지분유	24	25	28	31	35	31	31	27	25
탈지분유	79	97	105	98	146	140	143	144	164
농축유	41	38	37	36	36	35	33	32	32
버터	119	122	146	143	148	170	186	197	208
치즈	667	676	721	732	744	773	806	841	856
요구르트 외	558	557	544	527	518	536	519	510	532

주: 원유의 2014, 2018년은 미공표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3.2. 유제품 소비

USDA에 따르면, 2018년 폴란드의 연간 1인당 우유·유제품 평균 소비량(원유 환산)은 224리터로, 전년에 비해 3% 증가하였다. 신선 유제품이나 음용우유의 소비는 감소 경향으로 추이하고 있는 한편, 치즈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버터에 관해서는 가격 안정 및 수출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량은 안정되어 있다.

3.3. 유제품 수출

폴란드는 우유·유제품의 약 30%(원유 환산)를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음용유·생크림·연유류, 치즈, 유장분말 등이다(표 6).

〈표 6〉 품목별 수출처별 유제품 수출량(2019년)

단위: 톤

음용유, 생크림 무당연유		음용유, 생크림, 가당연유								유장분말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무당)		전지분유(가당)							
독일	507,223	독일	25,807	알제리	24,066	독일	11,945	사우디아라비아	660	네덜란드	41,343	체코	11,290	독일	43,796
중국	85,110	알제리	24,022	에멘	7,639	쿠바	2,025	하이티	125	중국	30,297	네덜란드	5,571	체코	30,394
러시아 나사	34,292	에멘	7,707	필리핀	7,404	크로아티아	1,473	말타	100	독일	26,248	슬로바키아	4,815	이탈리아	22,570
이탈리아	20,711	이탈리아	7,673	멕시코	7,066	이탈리아	1,192	브라질	70	인도네시아	18,581	독일	4,768	슬로바키아	17,096
영국	20,536	필리핀	7,404	베트남	6,332	이스라엘	958	세네갈	48	말레시아	9,670	루마니아	4,759	영국	15,519
기타	161,682	기타	87,757	기타	60,329	기타	5,101	기타	197	기타	65,536	기타	21,783	기타	129,143
합계	829,544	합계	160,370	합계	112,766	합계	22,694	합계	1,200	합계	191,664	합계	52,986	합계	257,508
(참고) 일본	110	(참고) 일본	3,620	(참고) 일본	3,620	(참고) 일본	-	(참고) 일본	-	(참고) 일본	1,353	(참고) 일본	-	(참고) 일본	77

주: HS코드는 (음용유, 생크림, 무당연유): 0401, (음용유, 생크림, 가당연유): 0402, 탈지분유: 040210, 전지분유(무당): 040221, 전지분유(가당): 040229, 유장분말: 040410, 버터: 0406, 치즈: 0406, 이하 같음.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EU 역내 수출은 주로 소비 기한이 짧은 제품들이다(표 7). 한편, EU 역외로 수출은 주로 ‘음용유·생크림·무당연유’, 탈지분유, 유장분말이다(표 8). 10년 전 EU 역내외 합계 수출 물량과 비교하면 모든 품목에서 증가하고 있다.

<표 7> EU 역내 수출용 유제품 수출량 추이

단위: 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음용유, 생크림, 무당연유	253,058	251,028	289,112	283,771	335,553	409,391	431,584	555,790	585,120	664,318
음용유, 생크림, 가당연유	71,147	58,721	64,281	64,108	57,853	63,268	49,289	48,761	62,343	65,529
탈지분유	47,318	39,880	37,630	42,131	36,355	40,096	29,258	25,327	36,182	27,979
전지분유(무당)	10,722	10,823	12,060	13,580	14,872	13,249	10,892	8,777	11,211	17,603
전지분유(가당)	540	167	340	201	353	1,319	176	152	117	177
유장분말	82,808	95,580	115,510	150,214	150,769	124,115	107,509	104,618	98,810	92,923
버터	21,742	29,091	26,733	27,330	29,154	34,495	35,161	49,551	59,890	45,528
치즈	107,935	109,925	115,999	129,656	137,664	163,183	172,749	177,415	192,281	189,931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EU 역외로의 수출 물량 증가 폭은 크다. 2019년 수출량은 ‘음용유·생크림·무당연유’는 2010년 대비 약 28배, 탈지분유는 동 2.7배가 되었다. 또한 일본으로 수출한 주요 수출 품목은 탈지분유 및 유장분말이다.

<표 8> EU 역내 수출용 유제품 수출량 추이

단위: 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음용유, 생크림, 무당연유	5,963	5,930	8,122	16,849	49,905	116,431	175,476	106,368	93,356	165,236
음용유, 생크림, 가당연유	37,010	49,533	47,181	30,471	99,870	79,096	58,567	76,207	103,211	94,841
탈지분유	31,041	44,554	40,498	21,144	81,567	68,853	50,550	64,672	96,193	84,787
전지분유(무당)	5,583	4,308	5,648	7,775	12,726	8,549	6,419	8,945	3,300	5,092
전지분유(가당)	83	327	62	809	307	306	137	550	345	1,023
유장분말	56,337	64,021	71,141	83,176	88,887	102,798	102,588	100,117	98,827	98,741
버터	2,475	2,870	2,980	2,652	3,590	3,523	6,549	4,873	3,403	7,458
치즈	44,241	41,911	61,576	77,959	69,795	60,042	62,063	69,009	68,427	67,577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3.4. 유업 회사

폴란드의 2018년 유업 회사 매출액 순위는 <표 9>과 같다. 폴란드 유업 회사들은 낙농협, 유한회사 중 하나의 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기업 형태에 따른 규모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다. 또 많은 유업회사가 EU 역내외에 제품을 수출하며, 매출액 차이는 수출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폴란드 유업회사의 랭킹(2018년)

순위	명칭	매상고	비고
1	Mlekovita낙농협	46억6,984만 즐로티 (1,296억 2,155만 엔) (1조 3,751억 7,329만 원)	우유부터 유제품까지 약 1,000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는 외에, 세계 159개국에 수출하는 폴란드 최대 낙농 그룹회사
2	Mlepol낙농협	40억 4,558만 즐로티 (1,124억 6,712만 엔) (1조 1966억 5,016만 원)	우유부터 유제품까지 폭넓게 취급하며, 제품의 30%는 수출용
3	Dannone유한회사	13억 960만 즐로티 (364억 688만 엔) (3,873억 6,920만 원)	프랑스 유업체의 자회사. 남부의 Bierun 공장에서 요구르트 및 치즈를 제조하며, 국내판매 및 유럽, 미국에 수출
4	Lowitz지역낙농협	12억 8,161만 즐로티 (356억 2,876억 엔) (3,790억 9,001만 원)	폴란드 중부에 위치하는 와비치지역의 낙농협으로, 우유부터 유제품까지 폭넓게 제조. 세계 30개국에 수출.
5	Piatnica지역낙농협	12억 3,520만 즐로티 (343억 3,856만 엔) (3,653억 6,228만 원)	폴란드 동북부 Piantica에 위치하는 지역낙농협으로, 우유부터 유제품까지 폭넓게 제조. 세계 20개국에 수출. 특히 커티지치즈 제조로 유명.
6	Polmlek유한회사	11억 9,287만 즐로티 (331억 6,179만 엔) (3,528억 4,145만 원)	우유부터 유제품까지 폭넓게 제조하는 외에, 쥬스 제조판매도 함. 세계 50개국에 수출.
7	Zott유한회사	11억 4,253만 즐로티 (317억 6,233만 엔) (3,379억 5,119만 원)	독일 유업체자회사. 주로 요구르트 등 유제품 제조
8	Lactalis Polska 유한회사	9억 591만 즐로티 (251억 8,430만 엔) (2,679억 6,095만 원)	프랑스 유업체의 자회사. 주로 치즈(기타 요구르트 및 버터)를 제조
9	Kolo지역낙농협	6억 7,831만 즐로티 (188억 5,702만 엔) (2,006억 3,869만 원)	우유부터 유제품까지 폭넓게 제조하는 폴란드 중부코위의 지역낙농협. 주로 분유나 버터 등을 제조하여, 제품의 60%를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 수출
10	Hochland Polska 유한회사	6억 6,360만 즐로티 (184억 4,808만 엔) (1,962억 8,757만 원)	독일 유업체의 자회사. 치즈를 제조

주: 1즐로티=27.8엔(2020년 12월 1일 현재), 10.64원/엔(2020년 11월 말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자료: Forum Mleczarskie¹³⁾.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13)격월간 포럼 Mleczarskie Handel은 유제품 무역에 관한 가장 오래된 폴란드 비즈니스 잡지이다. 이 제목은 폴란드의 현대적인 급속 이동 소비재(FMCG) 도소매 무역에서 카테고리 관리자(구매자와 판매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종류의 무역 잡지의 선구자였다. 이 제목은 다른 폴란드 언론에 자주

4. 향후 전략

4.1. 생산에 대한 전략

EU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ERASMUS+’가 작성한 폴란드 낙농분야 발전·전략·과제에 관한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향후 전략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으로 ‘생산 확대/전문화’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다(표 10). 이어 ‘기타 농산품에 대한 다양화/다른 일과 겸업’이 28.3%, ‘지켜본다’가 8.3%로 이어졌다.

2011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기타 농산품에 대한 다양화/다른 일과 겸업’을 최우선 전략으로 응답한 농가가 23.4%포인트 증가하였다는 점 이외의 항목에서는 포함 또는 감소하였다.

〈표 10〉 폴란드 낙농가의 향후 전략에 대한 최우선 항목 추이

단위: %, %포인트

항목	2011년	2016년	
			2011년 대비
생산확대/전문화	77.0	61.7	- 15.4
신규농장 개시	0.0	0.0	0.0
규모 축소	0.0	0.0	0.0
기타 농산품으로 다양화/다른 일과 겸업	4.9	28.3	23.4
다른 사람과 제휴	9.8	1.7	- 8.2
지켜본다	8.2	8.3	0.1

주: 사사오입으로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자료: 「ERASMUS+」 자료를 기초로 ALIC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에서 재인용

4.2. 수출에 관한 전략

ZPPM은 우유·유제품 생산량 증가가 국내 소비 증가를 넘어 향후 폴란드 낙농분야 성장에 있어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ZPPM은 폴란드 낙농분야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원유 생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EU 회원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다. 앞으로 성장하려면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중동, 북아프리카 및 남미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 주요 유업회사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폴란드의 중국 수출 동향 및 주요 업체 Mlekpólna농협의 수출에 관한 향후 전략을 소개한다.

인용된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Forum_Mleczarskie)

4.2.1. 중국 수출 동향

폴란드는 많은 유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다. 중국으로 가장 수출량이 많은 것은 ‘음용유·생크림·무당연유’이며, 2019년 8만 5,110톤으로 EU 역외로의 수출량 중 52%를 차지하고 있다(표 11). 또 유장분말의 대 중국 수출 물량도 많다. 전체 유제품 수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 EU 역외 유제품 수출의 국별 수출량(2019년)

단위: 톤

	중국		기타	EU 역외 합계	
		점유율(%)			
음용유, 생크림, 무당연유	85,110	52	80,126	165,236	
음용유, 생크림, 가당연유	5,496	6	89,346	94,841	
탈지분유	탈지분유	5,050	6	79,738	84,787
	전지분유(무당)	24	0	5,068	5,092
	전지분유(가당)	0	0	1,023	1,023
유장분말	30,287	31	68,454	98,741	
버터	-	0	7,458	7,458	
치즈	150	0	67,427	67,577	

자료: EU위원회 「Eurost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4.2.2. 주요 유업 회사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전략

Mlekpolsk는 2018년 중국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고 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¹⁴⁾’ 계획 하에 중국과 폴란드를 잇는 육로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¹⁵⁾. 이러한 양국의 긴밀한 연계가 앞으로 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이 회사의 중국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이 회사의 담당자는 자사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추가 매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유럽을 잇는

14) 중국은 2013년부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고대 실크로드를 떠올리는 육로와 해로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을 잇는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농업에 관해서도 일대일로 참여 65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무역협정 구축과 수출입 절차 간소화에 의한 원활한 무역의 촉진, 농업기술을 포함한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출처: 허덕외, ‘미국 농축산업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호(9권 4호). 중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뜻의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주창하고 있다.(출처: 중국학 위키백과 sinowiki, <https://chinesewiki.uos.ac.kr/wiki/>)

15) 중국과 폴란드를 잇는 육로개발에 대한 움직임은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 ‘鉄道による冷凍食肉輸入ルートを拡大(中国)’,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6.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철도망인 중국 익스프레스 철도(CHINA RAILWAY Express)에 대해 언급하며, 그동안 중국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신선 유제품 등을 수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수송하는 빈도와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 낙농협이 2019년 제3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한 제조 공장에서는 건설비로 유럽 투자은행(EIB)에서 5,000만유로(63억 엔, 655억 9,750만 원)를 이 공장 건설에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최대로 1일 300만 리터의 우유 및 유장분말을 분말 상태로 가공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위원회는 “폴란드 입장에서 중국은 특히 유장분말의 최대 수출지 중 하나” 라고 말했다. EIB의 투자 및 이 회사의 생산 거점 확대는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생각된다.

4.2.3. 중국 이외의 EU의 수출 개요

폴란드에서 EU 역외 수출은 중국으로의 수출 외에도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탈지분유 수출지로써 베트남은 수출 물량측면에서 제5위이다. 또한 2020년 8월 1일에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유제품에 대한 베트남의 관세율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제로화된다. 유럽유제품무역협회(EUCOLAIT)도 EU의 유제품 분야에서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시장으로서 베트남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¹⁶⁾.

5. 폴란드의 낙농·유업에 관련 정책

5.1. CAP 하에서의 폴란드의 재정 지원 제도¹⁷⁾

EU 전체 2014~20년 CAP 총예산은 4,080억 3,100만 유로(51조 4,119억 600만 엔, 5,353억 1,627만 원)이며 이 중 3,080억 7,300만 유로(38조 8,171억 9,800만 엔, 404조 1,763억 7,235만 원)이 제1축인 ‘직접 지불’에, 990억 5,800만 유로(12조 4,813억 800만 엔, 129조 9,591억 4,310만 원)가 제2축인 ‘농촌 개발’에 각각 할당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이 기간의 예산으로 폴란드에는 320억 유로(4조 320억 엔, 41조 9,824억 원)이 할당되어 있다(제1축에 234억 유로(2조 9,484억 엔, 30조 6,996억 3,000만 원), 제2축에 87억 유로(1조 962억 엔, 11조 4,139억 6,500만 원)).

16)EU·베트남 FTA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 ‘EU·ベトナム自由貿易協定, 8月1日に発効’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58.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17)EU의 CAP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폴란드는 CAP 하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회원국 중 하나이다. 예산 할당액에서 보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제5위이다.

또한 CAP 하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EU 전체에서는 고용과 성장, 지속 가능성, 근대화 기술 혁신 품질 등이 특정되어 있다. 하지만, 회원국 단계에서는 각국 독자의 농촌 개발 프로그램(RDP) 하에서 자국의 요구에 맞는 예산 배분을 정할 수 있다. 폴란드는 특히 소규모 농가, 농촌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가 지원을 우선 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제2축인 ‘농촌 개발’에서 제1축인 ‘직접 지불’ 예산으로 25%를 이행하여 사용하고 있다¹⁸⁾.

5.2. 제1축: 직접 지불

상술한 바와 같이, CAP의 제1축인 ‘직접 지불’로 폴란드에는 234억 유로(2조 9,484억 엔, 30조 6,996억 3,000만 원)이 할당되어 있다. 또한, 폴란드는 EU에 최근에 가입한 국가로써 특별 조치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는 간소화된 단일 면적 지불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직접 지불은 생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디커플링 지불¹⁹⁾’과 특정 생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만 지급되는 ‘커플링 지불²⁰⁾’로 분류된다. 또한, 디커플링 지불은 회원국의 의무지불과 임의지불로 분류된다(표 12).

18)EU의 새로운 CAP 정책 동향과 그 내용 중 제1축 및 제2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19)디커플링(decoupling): 보통 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와 연관이 많은 주변국가나 세계경제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동조화, coupling), 탈동조화는 이런 움직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넓게는 경제분야에서 사용되며, 좁게는 환율, 주가 등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도 자주 사용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증시가 급락하자 ‘디커플링’ 논란이 있었다. 유럽과 아시아 등 글로벌 증시가 미국을 따라 급락할 것인지를 두고 전망이 분분했던 것. 그러나 2011년 말이 되자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유럽은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아시아는 인플레이션과 경착륙 우려에 발목이 잡힌 상태이다. 반면 미국은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유럽 및 아시아로부터 디커플링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20)커플링 지불이란 경제적, 사회적, 환경 상 중요하여 생산유지가 곤란한 특정 품목에 대하여 지불기준과 현실의 생산량이 링크된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특정 생산에 대한 지원이며 농산 품목별 지불을 의미한다. 예로써 2014-2020년 CAP에서는 쇠고기, 유제품 등에 커플링 지불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가격소득 지지정책 중 디커플링 지불에는 1) 기초지불과 2) 추가 지불이 있는데, 추가 지불에는 또한 그리닝 지불과 청년농업인 지불(제2축에 추가), 재분배 지불, 자연적제약지 지불(제2축에 추가)등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기초지불이란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지불을 말하며, 수급요건으로 환경에 대한 활동을 의무로 한다. 그리닝 지불이란 기초지불에 추가되는 지불로써, 추가적인 환경기준 달성을 수급요건으로 부과하고 있다. 즉, 기후변동대책과 환경보전에 투자하였다고 인정되는 농업활동에 대해 지불하는 지원으로, 기초지불을 수급하는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다. 기초지불과 그리닝 지불, 청년농업인지불은 가맹국 재량 측면에서 의무 사항이지만, 나머지 재분배지불과 자연적 제약지 지불 그리고 커플링지불은 임의 사항이다. (출처: 欧州連合日本政府代表部, 「EUの共通農業政策の現状と今後の展望」, 2019년 12월, <https://www.eu.emb-japan.go.jp/files/000549223.pdf>) 및 農林水産省, ‘海外における環境直接支払制度の現状’, 「平成 平成30年度環境保全型農業効果調査事業結果」, 令和元年 8月(2019년 8월), https://www.maff.go.jp/j/seisan/kankyokakyou_chokubarai/attach/pdf/itaku_30-2.pdf)

〈표 12〉 폴란드의 제1축 하에서의 직접 지불(디커플링 지불)의 상세

디커플링 지불	의무	기초 지불	ha당 정액 보조금	110유로/ha
		그린 지불	기초지불 수급자에게는 기후와 환경에 유익한 조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불된다.	74유로/ha
		청년농업자 지불	40세 이하 농업자의 경영 설립에 대하여 직접지불의 평균단가 또는 기초지불 단가의 25% 상당을 5년간 상승시켜 지불된다.	62유로/ha
	임의	재배분 지불	회원국은 직접지불의 ha당 평균단가의 65% 수준까지 단가를 정해, 각 농업자의 30ha분 이하의 액을 '재배분지불'로 전농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41유로/ha
		소규모 농업자 지불	수속절차가 간소화되어 그린화 요건 등이 면제되는 소규모 농업자 지불. 농업자가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른 직접지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간 최대 1,250유로/농가

자료: 「Terre-net」(<http://www.terre-net.fr/>), 「Idele」(<http://www.idele.fr/>).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커플링 지불에 관해서는 회원국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커플링 지불이 없으면 생산이나 유지가 곤란한 품목을 지정하는 일정한 보조금을 할당할 수 있다. 폴란드에서는 우유·유제품도 커플링 지불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젖소 1마리당 연간 70유로(8,820엔, 104,956원)를 수급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제1축 하에서 지불되는 보조금은 제2축 하에서 지급되는 기타 보조금과 병용할 수 있다.

5.3. 제2축: 농촌 개발

폴란드는 CAP에서 예산 할당 87억 유로(1조 9,62억 엔, 11조 4,139억 6,500만 원) 외에도 결속기금(結束基金)²¹⁾으로 52억 유로(6,552억 엔, 6조 8,221.4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가 예산으로 49억 유로(6,174억 엔, 6조 4,285.6억 원)가 조성되어 있다.

21)EU 전역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생활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통합 정책으로, 15개 회원국(1인당 GNI가 EU 평균의 90% 이하)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에 창설된 기금.

폴란드의 RDP의 주요 목적은 (1) 식농(食農) 분야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2)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기후 대책, (3) 지역 인프라 향상, 교육 문화 공공 서비스 투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통한 전국의 농촌 경제의 발전이다. 구체적인 대응 사례는 <표 13>과 같다.

또한 제2축 예산의 35%가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에 충당되고 있는 반면, 30%가 농업에 관한 수질 관리 및 토양 관리 등 생태계를 배려하여 대응하는 농가에 충당되고 있다.

<표 13> 농촌개발 프로그램 하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사례

대응사례의 예
· 농업분야의 환경 및 경제면에 관한 지식의 계승을 지원하기 위해, 약 26만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트레이닝과 실증 프로젝트 실시
· 약 5만 호의 농가용 근대화 지원, 5만 호의 소규모 농가용 신오피레이션 도입 지원. 또한, 약 36만 명의 젊은이 용 농업창업 지원.
· 비료나 살충제, 제초제 사용 삭감. 위약한 자연 생식지(生息地)에 있어 보다 지속가능한 목초 및 청예용으로 지원.

자료: EU 위원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1月号에서 재인용

6. 맺음말

폴란드는 EU(27개국)의 주요 원유 생산국 중 하나이다. 폴란드에서는 EU에 의해 2015년 원유쿼터제도 폐지로 낙농가의 규모 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다. 폴란드에서 생산된 우유·유제품의 약 30%가 수출용이지만, 최근 유럽에서 중국 철도망의 발달 등으로 인해 중국 수출 물량이 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수출에 노력하는 등, 폴란드의 생산 및 수출 동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폴란드는 원유 쿼터 제도 폐지로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 원유 출하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가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실한 지원 아래 경쟁력 있는 가격 및 낙농에 적합한 자연 조건을 살려, EU 역내외에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 수출에 관해서는 현지의 유업회사도 시설 증강을 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유럽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철도망 등이 예전과 비교해서 발달하였으며, 향후 수송코스트 절감 등도 기대되고 있다. 또 EU·베트남 FTA 발효 등도 진전되고 있어, 앞으로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폴란드의 향후 생산 및 수출 동향에 대해 더욱 주목하여 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록 1〉 EU의 원유쿼터제도 폐지에 따른 생산 구조의 변화

폴란드는 원유쿼터제도 폐지 후 대규모 농가가 원유 생산량을 늘린 반면, 유가 하락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큰 타격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원유쿼터제도 폐지 후의 폴란드의 낙농 분야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은 의견이 있다.

(1) 은행 애널리스트에 의한 분석

EU 평균과 비교하면, 폴란드는 2015년 이후 원유 출하가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폐지의 혜택을 가장 받은 나라이다. 한편 여전히 소규모 농가가 많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2) 농업 컨설턴트에 의한 분석

이 제도의 폐지로 소규모 농가는 원유 가격의 저하 및 규모 확대에 의한 부채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장 경영 악화, 구입 사료 증가에 따른 경영의 불안 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한편, 대규모 낙농업 협동조합(낙농협)은 일시적인 손실이 있었지만, 집약화가 진행되어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낙농협인 Mlekovita와 Mlepol는 신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비롯하여 다른 농협과 합병, 유기 분야에의 대처 등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 폐지에 따른 2015년 이후의 원유 생산 증대는 목초지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낙농 공장에 접근하기 좋다는 점에서 북동부에 집중하여 있다.

폴란드의 사료 가격이나 인건비, 지가가 저렴하다는 점도 낙농 분야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에도 원유 생산량은 연 4~5% 정도 성장하며, 2025년에는 네덜란드를 넘어설 전망이다.

<부록 2>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대한 대응

폴란드에서는 일반적으로 EU 규칙 하에서 요구되는 요건 이상 환경을 배려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EU 규칙 이상으로 환경을 배려한 관행적인 대응으로 가축 분뇨를 저장하기 위한 콘크리트 판 사용이 꼽힌다. EU 규칙에서는 가축 분뇨를 저장하는 장소에 콘크리트 판 사용은 특정 보호지역에서만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는 국내 법 하에서 전체 낙농가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다. EU 전체의 요건을 넘는 내용이지만, 낙농가와 유업회사는 국내 법에 반대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해당 규정에 따르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ZPPM에 따르면, 몇몇 기업은 낙농가에 대한 유기낙농 등 보다 환경을 배려한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도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EU법에 따른 유기낙농 전환과 인증 취득에는 약 2년의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들이 낙농가 및 기업에게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효과가 낮다고 여겨졌다. 이에 유기 유제품 등 환경을 배려한 우유·유제품을 시장에 투입하고자 하는 폴란드 기업은 원료를 다른 EU 회원국(독일과 리투아니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 폴란드 국민은 낙농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환경적 대응을 요구하지 않고, 기업도 그 노력에 따른 경쟁에서의 우위성을 찾지 않는 한, 새로운 대처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는 삼림이나 영구 초지 면적이 넓고, 수질 오염이나 화학 비료 과다 사용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낙농업 분야의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 삭감을 요구하는 소리는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 김태련, 허 덕,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1) -영국의 EU 탈퇴 후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련, 허 덕,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4)- 프랑스 새로운 농업·식품법의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석진, ‘EU의 낙농정책 변화와 영국의 낙농정책’, 「세계농업정보」, 2013년 6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2)-MMB 및 원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유럽 우유·유제품 수급·무역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3) -차기 CAP (2021~2027년)의 검토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외, ‘미국 농축산업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호(9권 4호).
- 허 덕, 신승열, 「원유품질 고급화의 경제분석 및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년
- 허 덕, 허신행, 「유제품시장개방에 대비한 원유가격차별정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년
- 허신행, 허 덕, 이왕재, 「낙농발전 장기대책 수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년
- 허신행, 이성규, 허 덕, 「우유 수급균형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년
- 熊谷宏, 「農業經營·計算の小辭典」, 富民協會, 1981年
- 欧州連合日本政府代表部, 「EUの共通農業政策の現状と今後の展望」, 2019년 12월, <https://www.eu.emb-japan.go.jp/files/000549223.pdf>
- 許 徳, 「養豚經營の成長·發展と國際競爭力強化の可能性に關する研究」, 京都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5年
- 農畜産業振興機構, ‘ポーランドにおける牛乳·乳製品の生産および輸出動向について’,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年1月号
-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 ‘鉄道による冷凍食肉輸入ルートを拡大(中国)’,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86.html)
-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 ‘EU·ベトナム自由貿易協定, 8月1日に発効’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58.html)

農林水産省, ‘海外における環境直接支払制度の現状’, 「平成 平成30年度環境保全型農業
効果調査事業結果」, 令和元年 8 月(2019년 8월),
https://www.maff.go.jp/j/seisan/kankyo/kakyou_chokubarai/attach/pdf/itaku_30-2.pdf

EU위원회, Statistical Factsheet Poland

EU위원회 「Eurostat」

EU위원회, 「European Milk Market Observatory」

EU위원회, 「EU Dairy Farms Report」

USDA, 「Dairy and Products Annual」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해설, <https://www.nias.go.kr:3443/lbBreeds/selectLsBreedsView.do>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q/psqb/famITemDicLst.ps?menuId=PS00064>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생명과학대사전, 강영희,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중국어 위키백과 sinowiki, <https://chinesewiki.uos.ac.kr/wiki/>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Forum_Mleczarskie

ERASMUS+ 홈페이지 (https://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node_en)

Forum Mleczarskie 홈페이지 (www.forummleczarskie.pl)

Idele 홈페이지 (<http://www.idele.fr/>)

Terre-net 홈페이지 (<http://www.terre-net.fr/>)